

# 고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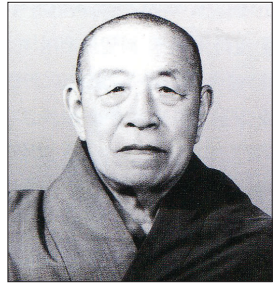
한국불교  
종단 70년

# 법문·문화·예술로 심성을 일깨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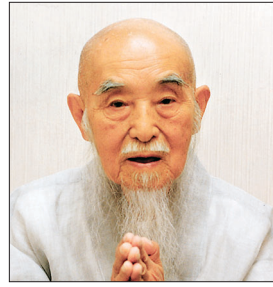
### 교육·역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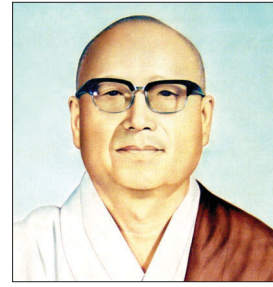
만암 스님



운허 스님



관응 스님



탄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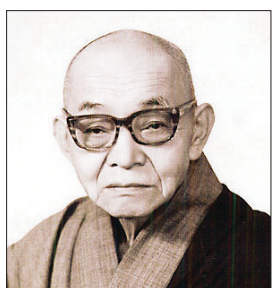


지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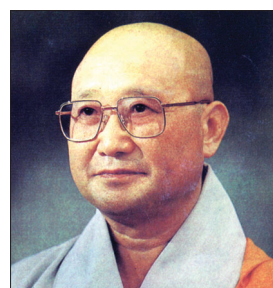
### 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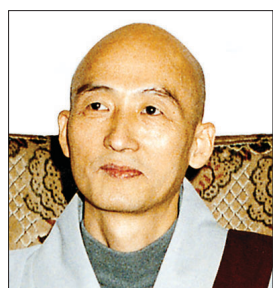
석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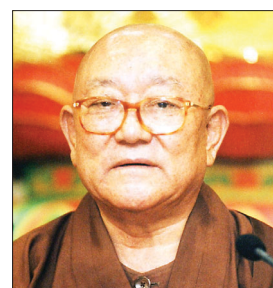
대은 스님



승산 스님



광덕 스님



무진장 스님

### 율사



목담 스님



자은 스님



일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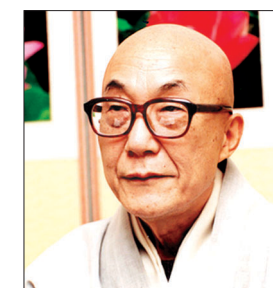
### 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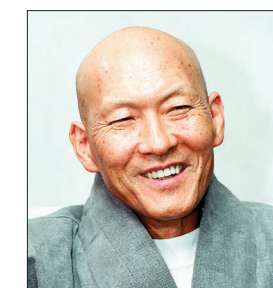
만봉 스님



승암 스님



석정 스님



법정 스님

서운 스님(1912~2003)은 백양사를 무대로 '참사람' 결사를 주창하며 임제정맥을 이어온 한국 현대불교의 대표적 고승이다. 1963년 동국대에 대학선원을 개원해 원장을 맡으며 참선의 대중화에 힘을 쏟았으며, 197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5대 종정에 추대된다. 이후 스님은 백양사 조실(1981), 백양사 문헌선원 조실(1990),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1996) 등으로 주석하면서 후학 제정과 한국불교 발전에 힘쓰다 2003년 마지막 날 백양사 설선당에서 좌탈입명했다.

월하 스님(1915~2003)은 1950년대 정화운동에 나선 이후 중앙총회 의회에서부터 총무원장, 동국학원 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종정에까지 오른 조계종 어른이었고 50만거를 기록한 이사(理事)를 겸한 선승이었다. 80세가 넘어서도 방청소와 뿔대를 직접 했으며 자가용 없이 버스를 타고 다녔다.

원담 스님(1933~2008)은 만공 스님으로부터 직접 탁마한 마지막 선승이었다. 어린 시절 절에 들어가 동진 출가자로서 천진 무애한 모습을 보여 불교계에서 대표적인 '천진불'로 꼽혔다. 또한 스님의 서예는 국내 최고의 선필로 알려지기도 했다. 제자로는 현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 임직한 법친 스님(1938~2014)은 현존하는 마지막 봉암사 수좌였다. 1956년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서 득력(得力)한 뒤, 1957년 33세의 나이에 대구 파계사 성전암에서 성철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후 제방 수행처의 정진대중들은 법친 스님에게 '절구통 수좌'라는 별호를 붙여 줬다. 2002년 조계종 11대 종정, 2007

년 12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 교육·역경

만암 스님(1875~1957)은 선과 교를 겸비하고 일찍이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해왔던 고승이다. 1929년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한 스님은 한국불교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후학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뜻을 세우고 1947년 정광 고등학교를 설립했다. 또 1951년 한암 스님의 입적으로 조선불교 중앙총무원의 새 교정에 오른 스님은 이후 종단의 분규 속에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운허 스님(1892~1980)은 한국불교 역경사에 길이 남을 고승이다. 스님은 <능엄경>을 시작으로 <무량수경> <법방경> <정토삼부경> 등을 번역했고 1961년에는 한국불교에서 처음으로 <불교사전>을 펴내는 업적을 남겼다. 또한 1964년 역경위원장과 역경위원장의 책임을 동시에 맡아 20세기 최대의 불사라 일컬어지는 해인사 고려대장경을 한글화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관응 스님(1910~2004)은 선교를 겸수(兼修)하고 포교에도 남다른 원력을 가진 스님이었다. 1965년 천축사 무문관에 입방해 6년간 수행했으며, 만년에는 직지사 조실로서 후학을 이끌었다. 칠순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직지사에서 <선문연승>을 강의하여 후학들에게 조사어록을 해석하는 새 안목을 열어 주었다. 또 황학학림에서는 3년 간 강의를 열어, 원산, 연평, 범하, 자일 등 10여명의 강백을 길러내기도 했다.

탄허 스님(1913~1983)은 불교뿐만 아

니라 유교·도교 등 동양사상 전반, 특히 <화엄경>과 <주역>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았다. 탄허 스님은 15년 동안 한암 스님을 모시고 오대산 상원사에 머물면서 불교 내전(佛敎內典)과 선학(禪學)의 일체를 수학했다. 이후 1953년 강원도 총무원 원장과 월정사 조실을 맡은 탄허 스님은 오대산에 수도원을 세우고 동국대 대학선원, 대전 자광사 등을 오가면서 수행에 전념했다. 1972년에는 화엄학 연구소장을 맡았으며 1974년 평생을 바친 <신화엄경합본>을 간행했다.

지관 스님(1932~2012)은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최고의 학승이며, 교육자였으며, 총무원장을 역임한 교단지도자였다. 지관 스님은 생전에 <치문경론> <대혜서장> <도서> <선요> <절요> <요경서설> <남북전육부 율장비교연구> <비구니 계율 연구> <불교교단 발달사> <계율론> <조계종사> <가야산해인사지> <역대고승비문총서> <가산 불교대사립> 등의 저술을 남겼다. 특히 필생의 원력인 <가산불교대사립>은 현재 14 권까지 발간됐으며, 스님의 입적이후에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유지를 이어 받아 편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율사

목담 스님(1896~1982)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종정을 두루 지낸 스님으로 청정 비구였다. 특히 해동칠불(海東七佛) 제9대 율사로서 한국불교 계율 수행사 자체이기도 하다. 1957년 조계종 중앙총무원 감찰원장, 1957년 조계종정(제 5·6·7세), 1975년 태고종정을 역임했다.

자은 스님(1911~1992)은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율사로 추앙 받는 인물이다. 이 바탕에는 치열한 수행정진이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부산 감로사에서 자료를 수집, 한글, 한문본 율서 4만 8000권을 간행해 현대 한국불교에서 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1981년 조계종 단일계단의 전개대회장으로 추대돼 1991년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계를 주기도 했다.

일타 스님(1929~1999)은 1976년 해인총림의 율주로 추대되면서 <사미율>, <불교와 계율> 등 계율 관련서를 발간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일제 강점기 이후 무너져 내린 지계정신을 다시 확립하는 데 매진했다.

### 포교

석주 스님(1890~2004)은 질곡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낸 고승이다. 1963년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1971년 제7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스님의 포교에 대한 남다른 활동은 어린이 포교로 이어졌다. 종단이 어린이 포교에 역량을 투입하지 못했던 1965년 스님은 칠보사에 어린이회를 창립해 어린이 포교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대은 스님(1894~1989)은 근대 포교의 기틀을 다진 선지식이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스님은 1929년 각황사(現 조계사)에서 '중앙포교사' 소임을 맡아 종단 공식 '조선불교 1호 포교사'가 됐다. 이때 가진 원력으로 <불교시보>를 10년간 발행하고 만주 열차에서 불교를 전하는 등 포교에 힘

썼다. 해방 이후에도 알기 쉬운 경전 번역과 해설서로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했다.

승산 스님(1927~2004)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평생의 원력을 바친 고승이다. 스님은 1966년 일본 신주쿠 흥법원을 시작해 현대 한국불교에서 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1981년 조계종 단일계단의 전개대회장으로 추대돼 1991년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계를 주기도 했다.

광덕 스님(1927~1999)은 철저한 지계를 바탕으로 평생을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갈구했으며 반야바라밀 실천운동을 전개해 생활불교 운동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다. 스님은 1954년 부산 좌천동 한 가정집에서 열었던 사랑방 법회를 시작으로 불광법회를 개설해 부처님 본연의 근본불교를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또 일생동안 30여 권의 불서를 번역하거나 저술하기도 했으며 각종 찬불가를 작사해 현대 불교 음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무진장 스님(1932~2013)은 포교에 평생의 원력을 바쳤다. 스님은 조계사에 머물며 청빈한 삶을 실천하고 불교발전과 대중포교를 위한 일에 매진했다. 조계종 제2·4대 포교위원장을 역임하고 2007년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뒤 대종사로 뽑혔으며 2010년 조계사 회주로 추대됐다. 평생 대중교화와 교육에 매진한 까닭에 조계종 포교대상을 비롯해 제3회 대원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 문화·예술

만봉 스님(1910~2006)은 단연 불교미술의 거장이며 당대 최고 금어(金魚). 스

님의 기법은 색상이 유독 화려하다는 것과 초(草)가 다양하고 세밀하다는 뚜렷한 개성이 돋보인다. 스님의 손을 거친 사찰 단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특히 경북 궁 경회루, 남한산성, 공주 마곡사 등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승암 스님(1914~2000)은 한국 불교 범음 범패를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식이다. 스님은 월하·벽해 두 어장 스님으로부터 범음 범패를 전수받아 1973년 범음 범패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받는데 큰 공헌을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었던 석정 스님(1924~2012)은 금강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스님은 서너살 무렵부터 그림을 그려 주위를 놀라게 했다. 전국 각지의 고향화를 돌아보고 연구한 끝에 마침내 옛 명화의 색깔에 감춰진 비밀을 밝혔으며 손상된 불화들의 옛 불화들의 보존과 수리에 힘썼다. 주요작품으로는 송광사 대웅보전의 후불탱화 등이 있다.

법정 스님(1932~2010)만큼 필묵 하나로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린 인물이 세간과 출세간을 통틀어 다시 존재할까. 스님은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지어 20년을 홀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속세를 떠나 자연의 벗이 된 후, 자연이 주는 가르침을 곧고 정갈한 글씨를 통해 보여줬다. 스님의 저서로는 <무소유>, <오두막 편지>, <서 있는 사람들>, <물소리 바람소리>, <홀로 사는 즐거움>,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맑고 향기롭게>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수타니파타>, <진리의 말씀(법구경)>, <인연이야기> 등이 있다.

심성민 기자

##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고추구 12E 3구    인치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 제등엔젤 용품

일지형    S형    T편리형

LED배선형    LED홀더형    견인지 초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